

그 계절의 향기



그 계절의 향기 캐릭터 기획서

2023-02-01 최신 업데이트

1. 주인공

1. 1. 기본

이름	미정, 플레이어에게서 입력	연령	21 세
성별	남	신장	170 중반
체중	60 중반	출신	대전광역시
소속	OO 대학교	성격	
호		불호	

1. 2. 외형 묘사

1. 3. 배경 스토리

1. 4. 성격

1. 5. 특이사항

2. 지구하

2. 1. 기본

이름	지구하	연령	20 세
성별	여	신장	160 후반
체중	50 후반	출신	인천광역시
소속	OO 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	성격	활발한, 충동적인, 정의로운
호	운동(수영), 술, 친구	불호	빚지는 것, 우천, 곤약(식감)

2. 2. 외형묘사

짙은 남색의 머리를 뒤로 묶어서 다닌다. 크고 명랑한 푸른 눈을 밝게 뜨며 짓궂게 웃을 때 송곳니가 보인다. 야외 활동이 잦은 탓에 피부는 전체적으로 갈빛을 띤다. 잔근육이 많고 탄탄한 체형을 가지며 스포티한 복장을 즐겨 입는다.

2. 3. 배경 스토리

지구하는 고등학생 때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급해지는 파도에 휩쓸릴 뻔한 적이 있다. 연거푸 들이 닥치는 바닷물에 의식을 잃어갈 때쯤 한 소년이 기적처럼 지구하를 구조해내었다. 가까스로 구조되어 희미한 의식속에 바라본 탓에 소년의 얼굴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그 일은 그녀에게 있어 해상인명구조원의 꿈을 가지는 동기가 되었다.

그때부터 체력을 키우기 위해 여러 운동을 꾸준히 해오면서 운동을 즐기게 되고 점차 인명구조보다 해양 스포츠 자체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이후 대학교를 레저스포츠 학과로 진학하면서 해양 스포츠에 관한 관심을 나날이 발전시켜 나갔다. 아직도 그때 자신을 구해준 소년을 동경하고 있으며 자신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2. 4. 성격

- 활발하고 당돌한 성격이다. 어딜가도 존재감을 드러내며 집단을 환하게 밝힌다. 다양한 친구들을 폭넓게 사귀면서 친구들과 부대끼며 같이 노는 것을 좋아한다.
- 본인이 하고 싶은 건 일단 하고 본다. 재밌어 보이면 행동이 먼저 나서는 편이며 간간이 그르칠 때도 있지만 좋은 경험삼아 후회를 깊게 하지 않는다.
- 의외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한다. 조그마한 잘못이라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으며 누군가에게 빚지는 것을 끔찍이 여긴다.
-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 맥주, 소주 등 술 종류를 가리지 않고 술자리의 분위기도 좋아한다. 마실수록 텐션이 올라가지만 책임을 지려는 성격 때문에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마시지는 않는다.

2. 5. 특이사항

- 기분이 안 좋거나 머리가 복잡할 땐 밖에서 가볍게 뛰고 오는 것을 즐긴다.
- 양성애자이다. 남자와 여자 둘 다 연애경험을 다수 갖고 있다. 본인은 여자를 좋아한다고 믿고 있지만 남들에겐 이성애자를 연기하고 있다.

3. 유가현

3. 1. 기본

이름	유가현	연령	21 세
성별	여	신장	150 후반
체중	40 후반	출신	대전광역시
소속	OO 대학교 게임학과	성격	소심한, 다정한, 소신 있는,
호	그림, 작은 동물, 웹 소설	불호	복적이는 자리, 거짓말, 노래

3. 2. 외형 묘사

밝은 갈색의 단발머리로 어깨보다 살짝 위까지 온다. 동그란 초록색 눈에 조그마한 얼굴이 다람쥐를 연상케 한다. 무난한 스타일을 선호하며 연한 색상의 옷을 자주 입는다.

3. 3. 배경 스토리

유가현의 연애는 5 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녀와 유난히 친하게 지내던 소년은 치기어린 약혼을 맺을 정도로 유가현을 좋아했고 그 마음은 그녀도 곧 다르지 않았다. 언젠가 둘이 정말로 결혼하는 날 꺼내어보자며 땅속에 결혼 서약을 묻어뒀지만, 소년이 먼 곳으로 이사를 떠난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후였다. 갑작스러운 이별에 유가현은 하늘이 떠나가라 울어댔으나 소심한 그녀가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렇게 그 서약의 존재는 점점 잊혀만 간다.

그날은 입학 준비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느라 한참 정신이 없을 때였다. 입학 준비로 정신이 없었던 그녀는 무심코 에타에 올린 질문 글에서 물어본 모든 내용에 친절하게 답변해준 천사를 발견했다.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한 유가현은 쪽지로 그 사람과 대화를 이어가며 다른 정보들도 손쉽게 입수할 수 있었다. 성격 탓에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는 차마 물어보지 못했지만, 분명 좋은 사람일 거라며 학교에서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망상에 들뜬 유가현이었다.

3. 4. 성격

- 소심한 성격 때문에 늘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을 망설인다. 먼저 와주는 사람에게 극한 감사를 느끼지만 밖으로 잘 표현하지 못해 깊은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 행동에 고민이 많은 편이다. 적지 않은 상황에서 선택장애 같은 면모를 보이며 생각할 시간 없이 몰아치는 것에 매우 취약하다. 가끔은 멘탈이 나가 현실을 도피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 망상을 자주한다. 웹 소설 등을 보면서 길러낸 뛰어난 상상력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한다. 특별히 친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겐 망상의 내용을 들려주고 평가를 기다리기도 한다.
- 거짓말을 매우 싫어한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굴려고 노력하고 친한 사람에겐 실제로 그런 성격이지만 거짓말을 들키는 순간 냉담하게 돌아서는 것이 가능하다.

3. 5. 특이사항

- 연애 경험이 전무하다. 인연 자체가 없는 것도 있지만 유가현의 수동적인 자세도 상당한 원인을 제공 중이다. 언젠가 운명적인 사람이 찾아올 거라 망상 중이다.
- 자신이 생각해낸 캐릭터가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기 위해 게임학과 기획분야를 전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기획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재능이 상당히 장점을 드러내는 중이다.

4. 한서령

4. 1. 기본

이름	한서령	연령	23 세
성별	여	신장	160 중반
체중	50 중반	출신	부산광역시
소속	OO 대학교 중퇴	성격	날카로운, 여유로운, 비웃는
호	돈, 클럽, 민트초코	불호	집착, 방해, 파인애플 피자

4. 2. 외형 묘사

허리까지 내려오는 금발 웨이브 머리에 이마를 덮은 앞머리 아래로 붉은색 눈이 쳐진 눈매와 함께 여유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몸매에 자신 있어 몸 선이 드러나는 옷을 선호한다.

4. 3. 배경 스토리

“야! 1 반에 한서령이 4 학년 남자애 좋아한대!” 한 어린 아이의 장난기 어린 목소리가 복도를 가득 메웠다. 소문 속 남자애와 우연히 의자에 나란히 앉은 것이 화근이었다. 근거 없는 소문이었지만 어린 한서령은 날마다 들리는 소문을 무시할 수 없었다. 학교 최고 여신 한서령이 남자애를 좋아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남자애에겐 오히려 행운인 셈이었다. ‘내가 좋아해주는 걸 영광으로 알아야지.’ 뺨뚫어진 호감을 키워가던 한서령. 그러나 부끄러워 할 줄 알았던 소년의 반응은 참으로 냉소하기 그지없었다. 진심으로 누군지 모른다는 눈치와 되려 관심 없다는 듯 태연히 화제를 돌리는 모습이었다. 학교 최고 여신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차이고야 만 것이다.

그때부터 한서령은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 남자들을 이용했다. 별을 따 달라면 따다가 갖다 줄 남자가 수십 수백명이 그녀 앞에 줄을 섰다. 그 남자애는 기억도 안 날 만큼 다양한 남자와 만나고 차기를 반복했다. 그러나 만남이 반복될수록 공허한 마음도 점차 커져가는 것이었다. 23 살이 된 지금까지도 클럽을 드나들며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새로운 만남으로 떼우려는 헛수고를 들이는 중이다. 이 방법이 옳지 않다는 것쯤이야 그녀도 알고 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늦었다는 것 또한 사실이었다.

4. 4. 성격

- 조울증을 심하게 겪고 있다. 한참을 웃다가도 한순간 정색하는 등 극심한 감정의 변화를 자주 겪는다. 본인의 감정을 감당하는 것도 버겁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은 이미 눈 밖에 난 지 오래다.
- 무언가가 망가져가는 것에 희열을 느낀다. 어렸을 땐 화단의 꽃을 꺾기도 하고 일부러 착한 사람이 화를 내도록 상황을 유도한다. 본인의 상태에 대한 복수 심리일지도 모른다.
- 누군가에게 방해받는 것을 상당히 싫어한다. 대부분 그녀의 계획대로 흘러가지만 혹시나 자그마한 차질이라도 생긴다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 일쑤다.

4. 5. 특이사항

-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신경쓰기 때문에 가능한한 세련되게 보이려 한다. 그러나 밖에서와는 다르게 집으로 돌아오면 폐인의 모습으로 돌아가 안과 밖에서의 모습에서 극단적인 차이를 보인다.
- 감정의 발달이 청소년기에서 멈춰 있다. 겉으로는 여유로운 척하지만 가끔씩 미성숙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어린 애처럼 굴기도 한다.